

성령의 기도

롬 8:24~27

성령의 축복

그동안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메시지는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육의 욕망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을 따르게 하며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새 몸을 주십니다. 부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를 보면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멀리 있었던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 그렇게 무서웠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 하십니다.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 오셔서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부활시키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능력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주 못하고 유창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최대한의 역할을 그분이 하십니다.

믿음의 눈 - 소망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럽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변하는 과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라는 말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는 꿈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놀랍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만 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원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보게 됩니다. 땅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며 내세의 구원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아직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없는 것이요, 내 손에 있지 않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내게 다가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미래의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일 뿐입니다.

니다. 진짜 소망은 감추어진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로 그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대망합니다.

예전에 미처 갖지 못했던 천국의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림을 받는 이 소망,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위대한 환상과 기대와 꿈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과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의 삶

따라서 기독교인은 자살할 이유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입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흥조를 띠게 됩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외롭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비판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을 했던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95%, 99%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에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5%의 가능성과 1%의 가능성에 두고, 기도와 성령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밀고 나갑니다. 그렇게 될 때 이 5%, 1%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을 비판하고 좌절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되지 않았어도 잘된 사람을 축복해 주고 격려하며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같은 말을 해도 단점이 아닌 장점을 이야기 하며,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같은 것을 이야기 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십시오.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일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축복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제일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다려서 얻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를 얻기까지는 가짜를 취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구원은 소망을 갖게 되며 참된 구원은 인내를 갖게 됩니다.

이 인내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크리스천은 환난이 오면 신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눈이 빛나고 몸이 신나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환란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달콤하고’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성질도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이 남자의 성격과 습관이 나쁩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당장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참아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 했다면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다면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성령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나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약할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며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착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목사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죽음이 왔고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하며 미래의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22절에 첫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환경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23절을 보시면 이러한 탄식을 하는 또 한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도 탄식을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탄식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탄식은 우리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탄식하십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으로,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음하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신음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며 신음하며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뛰어 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기뻐 춤을 추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계속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도 좋으니, 제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내 친구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를 위해 웃으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잠도 잘 수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친구를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은 100% 일치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완전한 기도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며 여러분이 성령님과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일단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불완전한 기도라도 일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칠 것조차도 없게 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고통
을 당하며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기도하십
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
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옵시고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